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5호

### <칼럼 기고>

**폭력의 악순환, 관행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자,  
스포츠계 학교 폭력에 대하여**

글 / 현승민 평화축구코리아 운영위원, 진행자

### 국회 비대면 토론회

**스포츠 폭력,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

“학교 폭력 가해선수,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국회, 스포츠계 폭력 대응 주문...2차 피해 줄여야”

정세균 국무총리 “학교폭력 이력,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라”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국회 비대면 토론회

# 스포츠 폭력,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일시 | **2021. 3. 4** | 목 | 오후 2시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안민석TV' 실시간 중계

주최 |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학교체육진흥회, 민체모

주관 | 국회 교육문화포럼  
대표의원 안민석·최강욱  
연구책임의원 김병욱·강민정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 발제

문경란 (前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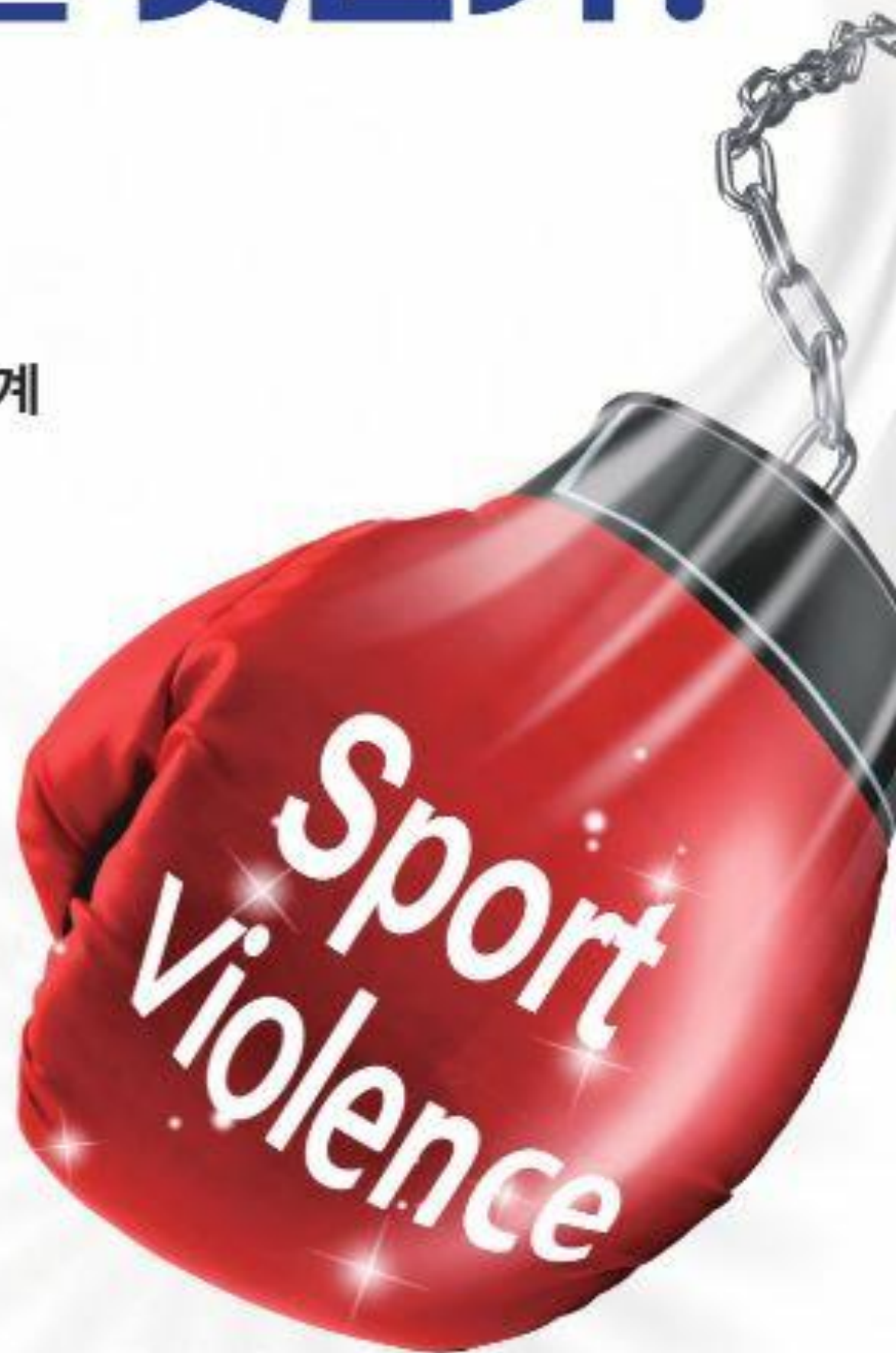
## 토론

허정훈 (중앙대학교 교수/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교사/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민체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2020년 11월 20일에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폭력의 악순환, 관행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자, 스포츠계 학교 폭력에 대하여



## 국제평화축구코리아 Football for Peace Korea

한국축구의 전설로 남은 박지성 선수가 10대 선수시절에 선배와 지도자로부터 당하는 폭력이 거의 일상과 같았다고 그의 부친인 박성종씨가 자서전을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점이라면 많은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피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1월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SNS를 통해 사실을 공개하자 두 선수는 즉각 선수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송명근 등 다른 선수들의 사례까지 공개되며 배구계는 물론 스포츠계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는 모양이지만 정작 소속팀과 협회 등의 단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적지상주의는 지도자와 선수 모두에게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실패는 곧 잊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도자와 선수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자본과 경쟁 중심의 문화가 스포츠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학교폭력과 스포츠폭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스포츠는 특별히 선발된 일부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스포츠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도 이미 사회적 문젠 된지 오래고 일부 연예인들도 구설에 오른 상황이라 구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전수조사방침', '예방교육강화'와 같은 관행적인 대책을 내놓을 뿐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피해자의 목소리와 필요를 뒤로한 채 모든 관심이 가해자에만 몰려 비난 여론에 힘입어 본보기 처벌로 경각심을 주는 수준으로 끝내는 일이 많아 피해회복을 통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작동한다면 학생 그리고 선수들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 비폭력을 선택하거나 폭력의 형태가 교묘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금메달을 안겨줄 유망 선수이기 때문에 과거 잘못된 행동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벌적 책임으로 피해회복이 되어야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이 되는 문화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퍼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 예방교육의 내용도 잘못하면 처벌이라는 방식을 넘어 평화감수성과 다양성 속에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 장 계속

비록 작은 시도지만 이에 국제평화축구로부터 시작되어 한국까지 전해진 스포츠 평화교육 전문팀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국제평화축구코리아는 국제프로그램을 수 년에 걸쳐 국내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소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존중과 공평, 신뢰와 책임 그리고 포용을 학습하도록 돕고 있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개발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운동 지도자, 시민에 이르기까지 평화교육과 스포츠 가치의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자본과 엘리트 중심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인류의 욕심은 기아와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하였다. 너무 늦은 시점일지 몰라도 지구 시민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의 의식이 회복되어야 할 때다. 가까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려있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마주하여 공동체 훼손된 스포츠 정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故 고유민 등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선수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승민 (평화축구코리아 운영위원, 진행자)





# 학교 폭력 가해선수,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학교 폭력 가해 선수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가해자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최근 프로배구 등에서 학교 폭력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폭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핵심은 피해자 회복 및 치유 지원이다.

교육부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련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폭력 행위의 수위 및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을 감안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입학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중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선수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3월 1일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도 정비한다.

다음 장 계속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가해자를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고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을 통한 폭력 예방도 추진된다.

가장 먼저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개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를 확대하고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기숙사 감축을 유도하고, 중고교 기숙사를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또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프로구단도 산하 유소년 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도 2년마다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는 의미에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체육계, 교육계 등 관계전문가와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교육부와 함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ohwwho@cbs.co.kr](mailto:ohwwho@cbs.co.kr)

# 국회, 스포츠계 폭력 대응 주문... “2차 피해 줄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스포츠계 학폭(학교폭력) 및 선수 대상 폭력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프로배구·야구계에서 잇달아 선수들의 과거 학폭 의혹이 폭로되고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이 학생을 하키채로 폭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한목소리로 들고 나선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장관에게 "현재 진행형인 아이스하키 폭력부터 막아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서 회유를 시도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되레 몸 사리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대한체육회에서 폭력 가해자에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협회나 체육회와 (협조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도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계 학폭) 관련 논의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심도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학폭 가해 논란) 선수들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 있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귀화해 사회적으로 재진입, 돌아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반복적 폭력사태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미온적 태도로 일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황 장관은 "일단의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며 "스포츠계에도 의견 전달해 정부와 같이 합의점을 찾자고 했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주 중으로 상당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문체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선수 선발시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고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 하는 등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은 또 황 장관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경제적 타격이 큰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과 △김치, 한복 등 우리 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했다.

[hypark@news1.kr](mailto:hypark@news1.kr)



# 정세균 “학교폭력 이력, 국가대표 선발에 반영하라”

최근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을 향한 ‘학투’(학교 폭력 나도 당했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이력을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폭 전력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경직된 위계질서, 폐쇄적인 훈련 환경 등 폭력이 조장되거나 감춰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도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때 동료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고,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의 센터 박상하는 최근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mailto:wonchul@hani.co.kr)

#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여의도포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는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937&code=11171316&cp=nv>

학교폭력 보도가 학교폭력을 닦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046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046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영혼 말살하는 '학교 폭력'... 제대로 된 처벌 못 하는 사회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9504025?OutUrl=naver>

[인터뷰] "스포츠 학폭 미투, 선수 아닌 시스템에 초점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8989&clD=13101&pID=13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3_0001348989&clD=13101&pID=13100)

이기흥 체육회장 "메달이 폭력 면죄부 될 수 없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4948&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14948&plink=ORI&cooper=NAVER)

학교폭력 선수, 사실상 스포츠계 퇴출... 앞으로 국가대표·프로구단 선발 제한

<http://www.ifm.kr/news/302156>

문체부-교육부, 체육계 학교폭력 뿌리뽑는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4001079>

[최강시사] "'집에 가고 싶어요' 학생선수 고백... 현 한국 스포츠의 단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7160&ref=A>

"운동부 학폭 50년 대물림... 합숙문화 없애 폭력사슬 끊어야" [인사이드&인사이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213/1>

프로스포츠 휩쓴 '학교폭력'... "성과주의서 비롯된 폭력 정당화"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93>

체육 특기·지도자 평가 합리적 개선... 스포츠 인권 개선키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2400068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